

정악곡 고찰을 통한 국악창작 지도내용 연구

유 선 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표현영역의 국악창작 지도내용은 민요토리나 장단을 활용하여 가락을 만들거나, 장단에 따른 노랫말 만들거나 변형 장단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학습내용 또한 국악의 장단과 장단별 말붙임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국악의 특징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사람의 작곡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 수많은 연주자들이 다듬어 연주하고, 그 곡을 변작(變作) 또는 다듬어 완성시킨 전통 국악 중 정악 《영산회상》, <도드리>, 《가곡》 등에 내재되어 있는 창작기법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전통 국악곡의 창작법을 활용하여 국악창작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조를 활용하는 법,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장단과 박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국악창작 지도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창작지도 예시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국악교육, 국악창작, 국악변작

차 례

- I. 서론
 - II.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창작 지도내용 분석
 - III. 전통 국악 창작법 고찰 및 창작지도 내용
 - 1. 정악 창작법 고찰
 - 2. 국악창작법 지도내용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국립공주대학교 부교수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음악교과 목표는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p.3).

우리가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사람의 오감(五感)을 통해 습득된 삶의 기초능력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 기초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면의 창의성이 개발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전인적인 인간은 그동안 기초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신의 사고와 감성을 더하여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문화를 알아야 하지만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우선되어야 정체성 있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교육에서는 표현·감상·생활화 영역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창의적 활동은 창작지도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창작활동에 해당하는 “제재곡의 일부가락을 바꾸어 표현한다.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음악작품을 만든다.” 등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이는 기존의 악곡구성을 이해하고 악곡구성조건을 활용하여 변작하거나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국어교과에서 글쓰기를 익히는 과정을 살펴보면, 글을 익히는 처음과정은 우수한 글들을 읽음과 동시에 다양한 예시 문장을 보고 쓰는 연습부터 시작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장구조를 이해하고 단문, 중문, 장문으로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창의적인 글쓰기가 이어진다. 이와 같은 맥락을 보면 음악창작 또한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하고 모범적인 가락에 사용된 작곡 기법을 모방하여 많은 악곡을 창작 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국악은 한 사람의 작곡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 수많은 연주자들이 다듬어 연주하고, 그 곡을 변작(變作)하여 또 다듬어 완성된 악곡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창작기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악곡에 내재되어 있는 창작기법을 고찰하여보고 전통 국악곡의 창작법을 활용하여 국악창작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악곡에 사용된 창작 방법은 ‘변조를 활용하는 법,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장

단과 박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 되었으며 악곡으로는 《영산회상》, <도드리>, 《가곡》, <취타> 등등 많은 악곡이 있다.

이렇듯 수많은 악곡이 전승되어오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악 창작 방법은 많은 국악이론서(권오성, 2000. 김영운, 2015. 서한범, 2002. 장사훈, 1988)에 제시되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노랫말 붙임새와 관련된 ‘가사 바꾸기, 변형장단 만들기’의 창작지도와 구성음을 활용한 ‘가락 만들기’라는 창작지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다양한 정악곡에 나타난 창작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물 또한 미미하다(박현경 2009. 정향미, 2017).

따라서 본 연구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표현영역 중 창작에 해당하는 성취기준과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어떠한 국악창작 지도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국악창작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정악에 사용된 창작 기법을 고찰하여 국악창작 지도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창작 지도내용 분석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 중 표현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초등은 “음악의 구성 및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중등은 “음악의 구성 및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고등은 “음악의 구성 및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활동과 경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교육부, 2015, p.4).

학교급별 목표는 기초(초등), 심화(중등), 응용(고등)의 단계에 따라 창의적 표현능력을 신장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표현영역의 목표 따른 창작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학년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영역 중 창작부분

학년군	2015 개정 음악교육과정의 표현영역 중 창작부분
초등학교 3~4학년	[4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4음01-04]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한다.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학년군	2015 개정 음악교육과정의 표현영역 중 창작부분
초등학교 5~6학년	[6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6음01-04]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한다. [6음01-05]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중학교	[9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9음01-04]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고등학교	[12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음악작품을 만든다. [12음01-04]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작품을 만든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영역 중 창작부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고,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하거나 가락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악곡을 모방하거나 일부 변작하는 창작의 기초학습 단계이다.

이 기초과정을 충실히 학습하고 나면 중학교에서는 모범적인 제재곡의 음악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 및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방학습과 심화학습 한 실력을 토대로 주어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음악작품을 만들어 표현하는 창의적 자기표현 단계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에 수록된 국악창작 지도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가락 만들기, 가사 바꾸기, 변형장단 만들기, 음악극 만들기’ 등 4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표 2> 창작 지도내용에 따른 출판사별 지도내용 분석

분류	출판사별	창작 지도내용	비고 (조건 제시)
가락 만들기	교학사①	정간보를 활용한 가락 짓기	정간보, 윷놀이
		국악창작	경토리, 3소박 리듬
	교학사②	국악창작하기	육자배기토리
	금성②	시를 품은 음악	5음 음계
	다락원②	우리 가락 만들기	중중모리, 3소박 리듬, 경토리
	동아①	정간보에 담은 나의 가락	도라지타령의 가락을 활용
	동아②	내가 만든 우리가락	육자배기토리, 3소박리듬, 노랫말바꾸기
	미래엔②	장단과 토리에 어울리는 가락짓기	세마치, 육자배기토리, 3소박리듬
	박영사①	한도막 형식 만들기	경기민요 음계, 3소박 리듬
	세광①	민요풍의 가락 짓기	5음 음계
	세광②	전통음악만들기	각 지역 민요토리
	아침나라①	우리가락짓기	자진모리, 육자배기토리
	아침나라②	우리가락 짓기	경토리, 3소박 리듬
	음악과생활②	경토리를 활용한 가락 만들기	노랫말 제시, 리듬꼴, 경토리
	지학사②	토리의 특징을 살린 가락 짓기	민요의 토리, 굿거리
	천재②	민요 가락 만들기	육자배기토리
노랫말 만들기	미래엔①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 창작	굿거리, 자진모리
	박영사①	민요가사 바꾸기	노동요
	비상교육①	시조 초장 노랫말 짓기	만들어 부르기
	아침나라①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 붙이기	자진모리
		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 붙이기	세마치

분류	출판사별	창작 지도내용	비고 (조건 제시)
변형 장단 만들기	교학사①	세마치의 변형장단	3소박 리듬, 세마치
	교학사②	국악창작하기	자진모리
	다락원②	변형 장단 만들기	3소박 4박, 중중모리
	미래엔②	자진타령의 변형장단	자진타령
	세광①	자진모리의 변형장단	자진모리
	음악과생활①	노랫말에 어울리는 변형장단	자진모리 변형장단 만들기
	천재①	굿거리 장단의 변형장단	굿거리, 여러 가지 장단꼴
음악극 만들기	성안당②	판소리 창작하기	사설, 발림
	와이비엠①	형성동그랑땡	노랫말에 어울리는 음악극

위의 <표 2>를 보면 가락 만들기과 음악극 만들기에 관련된 지도내용은 중학교 성취기준 [9음01-03]과 [9음01-04]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랫말 만들기과 변형장단 만들기는 초등학교 급의 성취기준의 지도요소로 중학교에서도 지도할 수 있지만 교과서의 교수·학습 내용을 고찰하여 보면 장단 타점에 따라 말을 붙이거나 기존의 노랫말에 가사를 바꾸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민요를 보면 노랫말의 음절수와 이면에 따라 장단가락(리듬)붙임과 선율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노랫말 만들기를 할 때에는 장단에 따른 말붙임과 노랫말 이변을 살려주는 선율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장단의 구음에 따라 노랫말을 붙이는 교수·학습 활동은 장단꼴 지도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말붙임새 교육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단순히 장단꼴에 따른 노랫말 바꿈은 초등학교의 노랫말 만들기 교수·학습 내용 보다 한 단계 올라선 학습이라고 볼 수 없었다.

‘변형장단 만들기’는 장단의 특징을 드러내는 노랫말의 기본적인 말붙임 형태에서 기본형을 벗어난 말붙임을 사용한 부분이나, 노랫말 문장의 대비(對比) 대구(對句)에 따라 장단의 변형을 만들어 반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변형장단 만들기는 노랫말과 상관없이 단순히 리듬을 변형하는 활동이다. ‘변형장단 만들기’에서 노랫말붙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리듬만 조합하여 변형장단을 만들어 연주하는 교수·학습활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표현영역의 국악창작 지도 내용은 대부분은 민요토리나 장단을 활용하여 가락을 만들거나, 장단에 따른 노랫말 만들거나 변형 장단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학습 내용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국악의 장단과 장단별 말붙임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전통 국악 창작법 고찰 및 창작지도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 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음악교과는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교육부, 2015, p.3)’하는 예술교과답게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인간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음악적 기능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외에 다양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강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악교육은 우리 음악의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온 악곡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악곡의 구성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역사·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음악교육은 우리 음악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적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이로써 스스로 향유하고 다방면에서 정체성 있는 음악적 사고를 적용하는 전인적인 인간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정악에서 나타나는 창작기법을 고찰하여 ‘변조를 활용하는 방법,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장단과 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보고 교육적 활용하기 위한 창작지도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악 창작법 고찰

1) 변조를 활용하는 법

변조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영산회상》이나 <취타>처럼 전 악곡을 이조하고 악기편성을 달리하여 새로운 곡을 파생하는 방법과 둘째, 도드리 계열의 악곡처럼 악곡의 일부를 변조하여 4도(6율) 하행 또는

악곡 전체를 이조하여 곡을 파생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평조희상>은 황종계면조인 《영산회상》을 4도(6율) 하행하여 임중계면조로 이조한 것이다. 4도하행시 각 악기의 음역을 벗어나는 음들은 5도 상행하거나 자연스러운 진행음으로 변화를 주어 악곡을 파생하였다. 이와 같이 악곡전체를 변조한 경우는 악기편성까지 변화를 주는데 《영산회상》은 세피리와 거문고가 포함된 줄풍류 편성이고, <평조희상>은 향피리와 아쟁이 포함된 관현악 대편성으로 구성된다.

<악보 1> 악곡 전체를 변조한 예시

- 92 -

(2) 악곡의 일부를 변조한 방법

악곡의 일부를 변조하여 악곡을 파생시킨 경우는 정악곡을 비롯하여 민속악에서도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악곡의 일부를 바꾸는 방법은 처음 시작부분이나 중간부분을 변화를 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악곡의 처음부분을 변화를 주어 곡을 파생시킨 경우는 하나의 음악형식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악곡의 형식을 악곡의 첫 부분만 변화를 주었다고 해서 환두형식이라고 하는데 도드리장단의 악곡이 대부분 이러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수연장지곡(밀도드리)> 악곡 전체 7악장 중 초장에서 5장4각까지는 옥타브 위로 변조하여 송구여지곡을 파생하였다. 이외에 가곡 <이수대엽>의 선율에서 시작부분을 높이 들어내서 만든 <두거>와 선율의 중간부분을 들어서 만든 <중거>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악보 2> 악곡 일부를 변조한 예시

수연장지곡	(이하 생략)	五장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중</td><td>이</td><td>변</td><td>변</td><td>변</td><td>중</td></tr> <tr><td>이</td><td>이</td><td>중</td><td>이</td><td>중</td><td>이</td></tr> <tr><td>변</td><td>변</td><td>이</td><td>변</td><td></td><td>변</td></tr> <tr><td>중</td><td>이</td><td>변</td><td>이</td><td>이</td><td>변</td></tr> <tr><td>변</td><td>이</td><td>변</td><td>변</td><td>이</td><td>이</td></tr> <tr><td>중</td><td>이</td><td>중</td><td>변</td><td>변</td><td>변</td></tr> </table>	중	이	변	변	변	중	이	이	중	이	중	이	변	변	이	변		변	중	이	변	이	이	변	변	이	변	변	이	이	중	이	중	변	변	변	초장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변</td><td>이</td><td>①</td></tr> <tr><td>변</td><td>변</td><td></td></tr> <tr><td>변</td><td>이</td><td>이</td></tr> <tr><td>이</td><td>이</td><td></td></tr> <tr><td>변</td><td>이</td><td>...</td></tr> <tr><td>변</td><td>이</td><td>이</td></tr> </table>	변	이	①	변	변		변	이	이	이	이		변	이	...	변	이	이	(중략)
		중	이	변	변	변	중																																																			
이	이	중	이	중	이																																																					
변	변	이	변		변																																																					
중	이	변	이	이	변																																																					
변	이	변	변	이	이																																																					
중	이	중	변	변	변																																																					
변	이	①																																																								
변	변																																																									
변	이	이																																																								
이	이																																																									
변	이	...																																																								
변	이	이																																																								
5장 5각부터 끝까지 ↓ 같은 음으로 연주	초장부터 5장 4각까지 ↓ 옥타브차이로 연주																																																									
송구여지곡	(이하 생략)	五장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중</td><td>이</td><td>중</td><td>중</td><td>중</td><td>중</td></tr> <tr><td>이</td><td>이</td><td>중</td><td>이</td><td>중</td><td>이</td></tr> <tr><td>변</td><td>변</td><td>이</td><td>변</td><td></td><td>변</td></tr> <tr><td>중</td><td>이</td><td>중</td><td>변</td><td>이</td><td>변</td></tr> <tr><td>변</td><td>이</td><td>변</td><td>변</td><td>이</td><td>이</td></tr> <tr><td>중</td><td>이</td><td>중</td><td>변</td><td>변</td><td>변</td></tr> </table>	중	이	중	중	중	중	이	이	중	이	중	이	변	변	이	변		변	중	이	중	변	이	변	변	이	변	변	이	이	중	이	중	변	변	변	초장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변</td><td>이</td><td>①</td></tr> <tr><td>중</td><td>변</td><td></td></tr> <tr><td>변</td><td>이</td><td>이</td></tr> <tr><td>이</td><td>이</td><td></td></tr> <tr><td>변</td><td>이</td><td>...</td></tr> <tr><td>변</td><td>이</td><td>이</td></tr> </table>	변	이	①	중	변		변	이	이	이	이		변	이	...	변	이	이	(중략)
		중	이	중	중	중	중																																																			
이	이	중	이	중	이																																																					
변	변	이	변		변																																																					
중	이	중	변	이	변																																																					
변	이	변	변	이	이																																																					
중	이	중	변	변	변																																																					
변	이	①																																																								
중	변																																																									
변	이	이																																																								
이	이																																																									
변	이	...																																																								
변	이	이																																																								

악곡의 중간에 선법을 변조한 경우는 가곡에서 평조 악곡과 계면조 악곡을 연속하여 연주할 경우 그 중간에 평조에서 계면조로 선법이 바뀌는 악곡을 연주하여 곡을 이어준다. 이러한 악곡에는 <반엽>, <편락>, <환계락> 등이 있으며 모두 반우반계(半羽半界) 선법으로 되어 있다.

<악보 3> 악곡의 중간에 선법을 변조한 예시

남창가곡 '편락'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변조를 활용한 창작법은 기악곡을 학습 환경에 따라 악기편성을 바꾸어야 할 때나 관악기 평취와 역취를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가창 음역에 따라, 또는 노랫말에 따라 가락을 변화시켜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구성음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방법은 주선율에서 구성음을 줄이거나 확대하여 다른 악곡을 파생하는 것인데 《영산회상》의 ‘가락덜이’는 ‘세령산’에서 가락을 덜어내서 파생한 악곡이다. ‘가락덜이’는 모곡인 ‘세령산’과 장단의 한배 속도 그리고 주요선율이 유사하여 완전히 다른 곡처럼 들리지 않는다.

또한 합주음악인 《영산회상》이나 《가곡》 반주를 관악기나 현악기의 독주곡으로 연주할 때는 구성 음에 가락을 더하거나 새김새를 가감하여 각 연주자만의 특색 있는 다른 느낌의 음악으로 연주한다. 국악에서는 이를 ‘상령산 풀이, 상령산 거문고 해탄’이라 부르며 독주곡의 한 장르로 자리 메김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독주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청성곡>이다. <청성곡>은 대금이나 단소독주곡으로 청이 높고 맑아서 <청성 자진한잎>이라고 부르는데 가곡 <계면 이수대엽>을 옥타브 올려 부른 남녀합창 <태평가>의 반주선율을 2도 상행하고 시김새와 가락에 변화를 주어 해탄한 악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구성음을 활용한 예는 <도드리>에서 파생한 <양청도드리>이다. <양청도드리>는 모곡인 <웃도드리(송구여지곡)>에서 한 장단 안의 구성음 6개 중 주요 음 2개를 골라내서 4박으로 된 한 장단 안에 기보하고 각각의 음 앞에 옥타브 아래음이나 구성음의 근음인 황종을 연주하여 양청을 올려내는 아주 빠른 음악으로 파생한 것이다. <양청도드리>는 원곡인 <도드리>와 전체 악장의 구성은 같으나 장단, 속도가 매우 많이 변하여 자세히 분석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악곡으로 들린다.

<악보 4>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예시

양청도드리

주장		부장	
黃 1	備 1	①	
二장			
黃 1	備 1	仲 1	

←

각 장단마다
주요음 2개를
뽑아
양청도드리를
창작함

송구여지곡

二장					주장	
						①

3) 장단과 박을 활용하는 방법

장단과 박을 활용하여 가락을 파생하는 경우는 국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창작기법이다. 이 기법은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과 이조를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새로운 악곡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 창작법으로 같은 악곡이라도 박을 줄여 장단에 변화를 주어 연주를 하면 매우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가곡의 장단을 보면 16박 장단과 10박 장단이 있다. 가곡이 16박 장단의 만·중·삭대엽의 형식에서 영조 때 청구영언 가곡집에 “만대엽은 없어지고 중대엽과 삭대엽 외에 그 전에 없던 농·락·편장단의 노래가 새로 등장”했다고 한다(장사훈, 1985, p.420).

이 시기에 등장한 ‘농·락’계열의 노래는 장단은 속도가 빨라진 16박 장단이고 ‘편’계열의 노래는 10박 장단이다. <악보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박 장단은 16박 장단에서 박을 짚어주는 10점을 제외한 ⊗로 표기된 사잇박을 모두 삭제하면 된다.

<악보 5> 장단과 박을 활용한 ‘가곡’ 예시

16박	
↓	덩 웃 더러 쿵 웃 따 기덕 웃 쿵 웃 따 덩 웃 더러 쿵 따
10박	
	덩 더러 쿵 따 기덕 쿵 따 덩 더러 쿵

또한 영산회상에서 박을 축소해서 장단을 파생시켜 가는 방법을 보면 다음 <악보 6>과 같다. <상령산> 20박에서 박을 2/1줄여서 <세령산> 10박 장단을 만들고 <세령산> 10박 장단에서 사잇박을 줄이면 <도드리> 6박 장단이 된다. 그리고 <타령>을 연주할 때 일정 단위 박을 대강을 기준으로 박을 쪼으면 4박 장단으로 <도드리>장단에서 사잇박을 줄인 4박장단이 된다.

<악보 6> 장단과 박을 활용한 《영산회상》 예시

상령산 20박	
↓	덩 기덕 쿵 따 더러 더러 따
세령산 10박	
↓	덩 따 더러 쿵 기덕 따
도드리 6박	
↓	덩 기덕 쿵 더러 따
타령 4박	
	덩 기덕 따 쿵 기덕 따

이상과 같이 장단과 박을 활용하여 새로운 장단을 만들고 구성음이나 변조를 활용하여 20박, 10박, 6박, 4대박 등 4가지 장단으로 된 새로운 악곡들을 만들어 1시간이 걸리는 대곡이 완성 되었다. 그리고 이 《영산회상》의 ‘상령산-중령산-세령산-가락덜이-상현도드리-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 등 총 9곡으로 된 전체 악곡을 4도나 2도 올려 이조하고 악기편성을 달리하여 관현악합주곡인《평조회상》과 관악합주곡인 《관악영산회상》이라는 대곡이 만들어 진 것이다.

또한 《가곡》에서 보면 16박 장단의 삭대엽류의 《가곡》에서 속도를 달리하고 변조를 활용하여 농·락류의 빠른 노래를 만들고, 장구 타점 사이의 박을 축소하여 10박으로 된 편(編)장단이라는 새로운 장단의 노래를 창작하여 남창 24곡 여창 15곡의 노래 틀이 전한다. 여기에 노랫말을 달리하고 그 노랫말의 이면에 따른 선율변화를 준 악곡을 더하면 매우 많은 《가곡》이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2. 국악창작법 지도내용

국악의 요소 및 개념에는 여러 가지 장단, 장단의 세, 장단꼴, 박의 한배, 말붙임새, 민요토리, 시김새, 여러 가지 형식, 내드름, 다스름, 여러 가지 변조, 여러 가지 종지형 등이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 국악곡 창작은 변작의 형태로 연주자들에 의해서 한 가지 개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악의 개념이 적용되어 창작된 곡들이다.

이 전통 국악 창작법을 현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창작지도 내용인 노랫말 짓기, 가락 짓기, 변형장단 만들기 등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한 가지의 개념만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할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연계 적용하여 창작지도 하고, 내드름, 여러 가지 종지형, 여러 가지 변조 등을 적용한다면 다양한 창작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노랫말 짓기를 할 때 노랫말 이면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곳을 부분변조를 하여 선율을 변경하여 변작하거나, 기존의 노래 장단의 사잇박을 줄이거나 늘여서 새로운 형태의 변형 장단을 만드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장단 한배와 강세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며, 새로운 노랫말을 지어보는 등 창의적인 창작활동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교육학자의 재량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악 중 《영산회상》과 《가곡》에 나타난 창작법의 활용방안을 교과서 가장 제재곡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변조를 활용하는 법

변조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악곡전체를 이조하는 방법을 적용해 기악 지도와 창작 지도를 연계할 수 있다. 단소나 소금 같은 관악

기를 지도할 경우 운지나 취법을 지도할 때, 또는 가야금의 구음을 익힐 때 변조를 활용하여 주법연습과 구음을 동시에 익힐 수 있다.

<악보 7>의 (가)의 악보로 단소 지도 시 <아리랑>을 평취로 학습한 뒤 옥타브 관계로 이조하여 변작한 뒤 역취연습을 하는데 이때 단소로 낼 수 없는 가락은 구성음을 줄여 가락을 만들고 단소로 불어보도록 한다. 또한 <악보 7>의 (나)의 악보를 보면 <아리랑>을 단소로 불 때 경기민요의 본청 潢(황중)이 E' 음으로 실음구성음은 '林南潢汰泚'이지만 계면조 악기인 단소로는 실음을 연주할 때 南(남려)와 고선(泚)을 반지공으로 연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仲林無潢汰'선율로 되어있는 단소곡 <아리랑>을 2도 올려 '林南潢汰泚'로 바꾸어 변작하고 연주 해봄으로써 심화학습으로 南(남려)와 고선(泚)음인 반지공을 막는 운지법을 지도할 수 있다.

<악보 7> 변조를 활용한 악곡 변작의 예시

(가) 옥타브 위로 변조+구성음				(나) 2도 위로 변조			
無	십	泚	나	無	십	泚	나
二潢	리			二潢	리		
無潢	도	泚	를	無潢	도	泚	를
汰潢	못	泚泚泚	버	汰潢	못	泚泚泚	버
無林	가	汰潢	리	無林	가	汰潢	리
仲林	서	無潢	고	仲林	서	潢	고
無	빌	汰	가	無	빌	汰	가
二潢	병	潢泚潢	시는	二潢	병	潢泚潢	시는
無	단	無林	님	無	단	無林	님
無	다	仲	은	無	다	泚	은
		二林				二林	
△		仲林		△		仲林	

가락을 단순화

2)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

교과서에 제시된 창작활동은 각 지역 토리의 구성음과 시김새를 살려 가락 짓기 및 변형장단 만들기 등의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있다. 기존의 악곡 구성음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방법은 익숙한 악곡에서 구성음을 뽑아 리듬을 단순화 하여 다른 장단의 악곡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창작교육에 쉽게 접근하는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악보 8>에서 제시한 경토리 <아리랑>을 육자배기 토리로 바꾸는 방법에서도 구성음을 줄이고 박에 변화를 주어 세마치를 중모리 악곡으로 변작하였다. 이 창작곡을 활용하여 가창 및 장단 지도를 통한 악곡의 특성 변화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악보 8> 구성음을 활용한 악곡 변작의 예시

경 기 민 요	아 - 리 랑 - 아 - 리 랑 - 아 라 - - 리 - 요 - - - - 아 - 리 랑 - 고 - 개 - 로 - 념 - 어 간 다
↓ 세마치 경토리 <아리랑>을 육자배기토리로 변작함	
남 도 민 요 화	아 리 랑 아 리 랑 아 라 리 요 - - 아 리 랑 고 개 로 념 어 간 다 - -

3) 장단과 박을 활용하는 방법

장단과 박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방법은 악곡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여 악곡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과 가곡의 편장단처럼 한 장단에서 사잇박을 줄여 속도와 장단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악보 9>에서 제시한 <태평가>는 굿거리장단에서 사잇박을 줄여서 단모리 장단으로 된 악곡으로 변작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장단구성의 이해와 박의 변화에 따른 악곡의 변화를 지도할 수 있다.

<악보 9> 장단과 박을 활용한 악곡 변작의 예시

태평가원형	
↓ 굿거리장단의 사잇박을 줄여 단모리로 변작함	
태평가변형	

IV. 결론 및 제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표현영역의 국악창작 지도내용은 대부분은 민요토리나 장단을 활용하여 가락을 만들거나, 장단에 따른 노랫말 만들거나 변형 장단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학습내용 또한 장단의 특징과 장단별 말붙임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국악의 특징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으로 음악교육에 적용 가능한 전통 국악창작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정악에 사용된 창작 기법을 고찰하여 국악창작 지도내용을 연구하였다. 정악곡인 《영산회상》이나 《가곡》에서 나타나는 창작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조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영산회상》이나 <취타>처럼 전 악곡을 완전히 이조하고 악기편성을 달리하여 새로운 곡을 파생하는 방법과 도드리 계열의 악곡처럼 악곡의 일부를 변조하여 4도 하행, 5도 상행, 옥타브 상행하여 악곡에 변화를 주어 파생하는 경우다. 그리고 <반엽>, <편락>, <환계락>처럼 한곡 안에서 선법을 변화시켜 곡을 파생하기도 한다.

둘째, 구성음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방법은 주선율에서 구성음을 줄이거나 확대하여 다른 악곡을 파생하는 것인데 《영산회상》 중 <세령산>에서 가락을 덜어

내서 창작한 <가락덜이>가 있고, <도드리>에서 주요음 두 개를 뽑아 새로운 곡으로 창작한 <양청도드리>가 있다.

셋째, 장단과 박을 활용하여 가락을 파생하는 경우는 국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창작기법이다. 이 기법은 구성음을 활용하는 방법과 변조를 활용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새로운 악곡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 창작법으로 《영산회상》의 ‘상령산(20박) → 세령산(10박) → 도드리(6박) → 타령4대박(12박)’ 장단과 《가곡》의 ‘삭대엽, 농, 락(16박) → 편(10박)’ 장단의 악곡 변화처럼 박을 줄여 새로운 장단의 음악을 창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통음악 중 정악과 가곡에서 악곡이 진승되어오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악 창작 방법을 고찰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기악지도 시 제재곡을 변조하여 운지 및 취법을 지도에 적용하는 예와 경토리 민요를 육자배기토리로 변작한다거나 굿거리장단 민요의 사잇박을 줄여 단모리로 변작하여 가창하는 ‘창작+가창+기악’을 통합지도 할 수 있는 예시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정악의 창작방법은 국악의 구성 및 표현방법 및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작교육 자료로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연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통국악 창작법을 고찰한 국악 창작지도 내용에 관한 연구는 국악 창작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 연구를 기초로 전통국악 창작법을 적용한 다양한 국악 창작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정악뿐 아니라 민속악 창작법 고찰을 통한 국악창작 지도법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신, 이유평, 이성초, 김효진, 김보라, 최슬기, 김효섭, 이은솔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2**, 서울: 교학사.
- 교육부 (2015), **교육부 고시 제 2015 음악과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 _____ (2015),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권오성 (2000), **한민족음악론**, 서울: 학문사.
- 김광옥, 박정자, 김희경, 박복희, 김주경, 이누리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2**, 서울: 주, 아침나라.
- 김영운 (2015), **국악개론**, 서울: 음악세계.
- 민경훈, 오지향, 정재은, 송주현, 이분희, 양정아, 김선희, 이윤경, 김주현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2**, 서울: 동아출판사, 주.
- 박준영, 강만호, 김수철, 윤미영, 임서향, 변은지, 김혜미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서울: 주, 와이비엠.
- 박현경 (2009), “영산회상의 창작 기법을 활용한 국악 창작 지도방안” 충북: 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서한범 (2002),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운, 황은주, 송미애, 양덕희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서울: 주, 음악과 생활.
- 장기범, 박경화, 김주경, 홍종건, 조성기, 송무경, 황지연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2**, 서울: 주, 미래엔.
- 장사훈 (1988), **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정육희, 이정원, 유대안, 임미소, 임세롭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2**, 서울: 주, 성안당.
- 정길선, 황병숙, 강세연, 박경준, 곽은순, 엄숙용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2**, 서울: 주, 지학사.
- 정향미 (2017), “전통국악 창작법 고찰을 통한 국악창작 지도법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대현, 김영미, 최은아, 윤아영, 이정대, 이현정, 여선희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2**, 서울: 주, 다락원.
- 주광식, 최은아, 김영현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서울: 주, 박영사.
- 주대창, 홍미희, 홍진표, 이동희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서울: 주, 비상교육.

최은식, 김명식, 권혜근, 강선영, 박은영, 문베티, 이정은(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2**. 서울: 주, 천재교과서.

허화병, 오병태, 안주연, 오누리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2**.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현경실, 김용희, 현경채, 임인경, 최유진 (2018). **중학교 음악 교과서 2**. 서울: 주, 금성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Instructional Contents for Korean Music Cre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Jeongak Pieces

You, Sun-Mi

Instructional contents for Korean music creation in the expression area of th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under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mostly centered on making melodies or variational rhythmic patterns using the *tori* and rhythmic patterns of Korean folk songs. It is believed that, however, educators cannot properly teac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sic if teaching and learning take place without a full understanding of rhythmic patterns of Korean music and *mal-buchimsae* corresponding with each rhythmic pattern.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embedded in Jeongak <Yeongsanhoesang>, <Dodeuri>, <Gagok>, etc. that were completed through having been played, altered, and refined by a good number of performers over several generations, not by one composer. In order to make it applicable to Korean music creation education through the use of the compositional principles of Korean music pieces, this study also examined instructional contents for Korean music creation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how to use transposition and modulation,' 'how to use constituent notes,' and 'how to use rhythmical patterns and beats' and suggested the instructional examples.

Key words: Korean music education, Korean music creation, alteration and revision in Korean music.

투고일: 8월 30일, 심사(수정): 10월 5일(10월 10일), 게재확정일: 10월 25일